



일본 젓소심사자 연수를 다녀와서



박흥섭
대원목장 대표

한경대학교(총장 최일신)의 친환경 농축산물브랜드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젓소심사자교육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21~28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일본심사연수를 다녀왔다.

1. 연수목적

농림부 지역농업특성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내에서 10일 일본에서 18일, 총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의 최종목표는 국내 낙농가들에게 젓소개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참여시킴은 물론 지역마다 열리는 홀스타인품평회에서 비교심사의 능력을 배양하여 품평회에서도 외국의 브리더들과 같은 활동을 기대하기 위하여 국내의 젓소개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됐다.

일본연수기간 중 낮에는 목장을 방문하여 젓소심사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교육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갖는 등 연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2. 일본연수일정 및 내용

▶ 1일차(8월 21일) _ 일본의 등급형질

치터세공항에 도착하여 일본홀스타인등록협회 북해도 지부로 직행하



여 진보 부장으로부터 일본은 등급형질이 체모골격25%, 지체20%, 유용강건성15%, 유기40%, 비중으로 4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방법인 1~50점제를 버리고 1~9점제로 전환 배경과 방법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들었다.

▶ 2일차(8월 22일) _ 핫꼬학원, 나까다목장, 이와다목장

핫꼬 학원(북해도 농업 전문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젖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유두의 배열과 위치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위치에 있다는 것에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남녀 구별 없이 일하는 모습과 수첩에 수정날짜, 종모우관련 자료 등을 빼곡히 정확하게 기록하며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성실성을 보이는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선형심사 교육을 참관하면서도 수첩을 펼쳐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후계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두 번째 방문한 목장은 나까다 목장이었다. 캐나다에서 1억 원을 주고 수입한 종빈우를 보유하

고 있었다. 이 종빈우에서 태어난 블릿츠 송아지는 지난 5월 방문했을 때(2개월령)보다 눈에 띄게 자라있었다.

크게만 키우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우리지만 분명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즉 유전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나까다 목장대표로부터 “품평회 준비하면서 항상 자신을 분발시키고,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젖만 짜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에 듣는 순간 자그마한 나까다 대표가 한없이 크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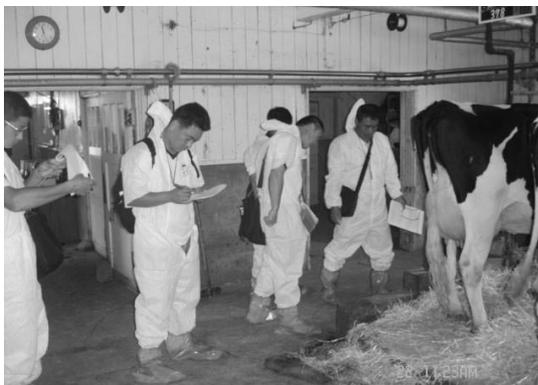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와다목장이었다.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았지만 품평회에 출품할 젖소 앞에서 엑셀런트를 기대 한다는 말과 이 젖소의 단점을 지적하자 지적당한 단점을 심사위원 안봤으면 좋겠다며 소탈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목장장이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나까다 대표와 마찬가지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낙농이 발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날 동행한 다카하시 쿠니히로(일본홀스타인등록협회, 2006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심사위원)부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로 물을 지키도록 하라.(개인의 생각보다 약속된 물)

둘째 후계자 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의 장으로 홀스타인품평회를 활용하라

셋째 홀스타인품평회는 개량의 척도를 확인 하는 자리이다.



▶ 3일차(8월 23일) _ 털깎기교육, 후쿠야목장
35세의 젊은 목장주가 운영하고 있는 나가야마 목장을 방문하여 털깎기 교육을 받았다.

- 출품우 털깎기 교육

털깎기 교육 내내 열심히 설명하며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꼈다

교육 마지막에 등선을 손질하며 수십마리 깎아 보았지만 등선 손질은 어렵다며 너스레를 떨자 옆에 있던 아라끼씨가 나는 젓소 수백마리 깎았지만 아직도 등선을 손질하는 것은 어렵다며 씩 웃는 모습에서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목장주와 아라끼씨 또 홀스타인 북해도 지부의 진보부장, 다카하시씨 등의 관계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미경산 5두 인도를 위해 인근의 후계자들이 흔쾌히 나서(우리의 실제 심사를 위해) 주는 것을 보며 그들의 열정이 고맙기만 하였다.

- 후쿠야 목장

개인적으로 히데또 대표를 2005년 2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에서 처음 본 것 같다. '무지(無知)하게도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는 생각을 다시금 한다.

나는 손 착유로 시작하여 30년동안 소를 다루어 왔는데 하는 알량한 자격지심으로 만나 털깎기 교육 도중 뒷발로 차이로 젓소가 두 번이나 뛰어 넘었는데도 끝까지 손질하는 프로근성과 육성우와 초임우를 돌아보며 잘못된 사양관리를 지적하는 모습, 그리고 제3회 포천품평회에서 심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여태껏 무엇을 했나하는 자조적

인 후회를 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후계자들에게 만큼은 이러한 후회를 대물림하지 말자는 각오를 하며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히데또씨를 다시 만나니 반갑기만 하였다.

또한 내일 품평회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여유가 부럽기만 하다.

▶ 4일차(8월 24일) _ 도중낙농제

도중낙농제는 9월에 있을 북해도 홀스타인공진회의 예선전 형태의 지역공진회로서 이번엔 110두가 출품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16부 출품우들은 전부 후대검정 낭우들로 되어있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대회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행사였다.

▶ 5일차(8월 25일) _ 가미와공진회

제50회 가미가와 공진회에서는 총 78두가 출품하였다. 5개부에서 2두 이하로 출품되었지만 그래도 15개부로 운용하면서 주니어 쇼맨 콘테스트(34회)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6~8 세로 보이는 꼬마들이 멋있게 젓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였다.

▶ 6일차(8월 26일)_ 북해도 도카치 축산종합공진회

북해도 토카치 축산종합공진회에서는 총 355두가 출품되었으며 1부에서 많은 꼬마들이 인도하여 우리와는 대조적이었다.

그중 한 꼬미는 젓소를 그만 놓쳤으나, 굴레만은 꼭 쥐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과 안쓰러움 주었다. 이날 심사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끼씨가 맡고 있었다.



평소 장난기 많은 아라끼씨 이지만 심사하는 모습만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추주에게 위로의 말을 잊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상의 3개 공진회의 입상축을 분석하여 아비(종모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Regancrest Elton DRHAM
- Regancrest DUNDEE
- Regancrest MR,Drham SAM
- Braedale GOLDWYN
- Pursuit September STORM
- Oseeana ASTRONOMICAL
- Far-O-LA,Debbie-JO DRAKE
- Comestar STORMATIC
- Lystel LEDUC
- Roylane, JORDAN
- Markwell KITE

대다수의 종모우는 수입규격 기준에 미달하여 우리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한번의 우수한 종모우 사용으로 좋은 후대축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형질별 우수한 종모우 도입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개량의 기초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7일차(8월 27일) _ 호소다목장, 아사노목장

호소다 목장은 추주 호소다씨의 입원으로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했지만 막내딸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공방에는 갈 수 있었는데 평일인데도 가족끼리 혹은 젊은 연인들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농산업에 또 다

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 전에 깨끗한 목장관리와 약간의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목장을 공개하고 있는 자부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사노 목장은 출입문 양쪽에 튜브로 감싸 젖소들이 부딪힐 때의 충격 완화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고, 운동장에 티모시, 곤포 헤일리지 등을 급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유생산량 보다는 생애생산성을 고려한 건강한 젖소를 만들기 위해 사양관리에 전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사노씨는 개량에 종모우 선정(정액상사에게 관심 있는 종모우의 낭우 사진을 요구 또는 인터넷상의 낭우 사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결정적인 약점(Regancrest Elton DRHAM 뒷유두 위치가 안쪽으로 붙음으로서 잔유량이 많아 유방염이 걱정된다 등등)을 가진 종모우는 사용을 안 한다고 말했다.

▶ 8일차(8월 28일) _ 북해도 제네틱

지하철 이용하여 방문한 북해도 제네틱에서 개량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홀스타인품평회에서는 체형과 생산이 조화되어 우유생산성과 관련된 체형이 좋은 젖소를 높게 평가하는데 특히 유방의 깊이와 넓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방의 깊이가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품평회에서 낙농가에게 능력과 체형이 좋은 젖소를 보여줌으로써 개량의 동기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품평회의 활성화가 개량의 속도를 배가시킨다고 전했다.

더불어 생산능력 위주의 개량이 문제점이 많다

고 밝히며 정점(생산능력최고)에서의 체형적인 문제 강건성, 지제, 유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량, 즉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라끼씨는 일본에서 젓소가 도태되는 원인은 첫째가 유방이며, 둘째가 지제, 셋째가 생산능력 및 번식 장애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연수를 끝마치고

7박8일간의 일본 연수를 통해 값지게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목장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동기(좋은 종모우 사용으로 개량의 기대치 극대화,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깨끗한

목장관리와 경영으로 소비자에게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좋은 젓소(주둥이가 넓고 크며 충분한 체적과 골격을 갖추고, 먹은 만큼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면서 높고 넓은 균형 있는 충분한 용적을 가진 유방, 많이 나가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다리를 구비한 젓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넷째, 낙농과 관련된 단체 및 관공서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이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러한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이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에 목장을 경영하고 젓소를 사랑하는 낙농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한다.

